

HEADLINE NEWS

건축허가절차를 안내하는 「시민 서비스센터」 개설 (시애틀)

미국 시애틀市는 현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건축허가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신청자 서비스센터(Applicant Service Center)」를 운영중이다. 서비스센터에서는 건축허가 절차 및 토지이용, 건축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신청자들이 찾아가야 할 담당부서 및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상·하수도, 단지 개발, 소방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배치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신·개축 및 재건축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허가 신청 및 승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원만하게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다. 市는 또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정식 허가신청에 앞서 사전점검 절차를 두고 있다. 아울러, 신청인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부지조건 및 도시계획 정보를 담고 있는 GIS를 구축, 이를 활용하고 있다.

(www.ci.seattle.wa.us/dclu/ASC/Overview.htm)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도심부에 대규모 오피스빌딩 건설 붐 (동경)
- ② 주택수요조사 실시 및 투자대책 강구 (독일 비스바덴市)

도시환경

- ③ '차량에서의 쓰레기 투기' 신고 위해 핫라인 개설 (미국: 피닉스市)
- ④ 청소차량을 '디젤차'에서 'LNG차'로 전환 (샌프란시스코)

도시교통

- ⑤ 민간기업과 연계해 승용차이용 억제 추진 (런던)
- ⑥ 버스승객 유치 위해 버스이용정보 제공 강화 (버밍엄)
- ⑦ 원활한 교통흐름 위해 광역차원의 교차로신호 연동화 추진 (워싱턴 D.C.)
- ⑧ '안전한 지하철' 위해 '첨단 범인추적시스템' 가동 (런던)
- ⑨ 유적지 보호 위해 진입차량에 통행료 부과 (영국 더럼市)
- ⑩ 교통혼잡 완화 위해 카풀전용차선 확충 및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강화 (미국: 새크라멘토市)

사회복지

- ⑪ 사후관리보다 예방 및 영구해결에 역점을 둔 노숙자 종합대책 마련 (뉴욕)

행.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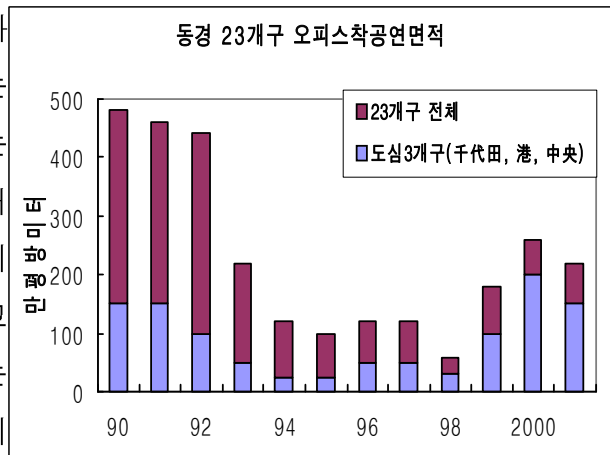
- ⑫ 도시정부의 성과평가보고서 일반시민에 공개 (미국 잭슨빌市)
- ⑬ 「노상음주 금지법」 시행 (마드리드)

① 도심부에 대규모 오피스빌딩 건설 붐 (동경)

일본 東京都는 23개 區의 오피스 수급동향에 대해 분석한「東京도시백서」를 최근 공개했다. 백서에 따르면, 오피스 착공 연면적은 거품경제의 붕괴로 1993년부터 줄어들었다가, 1999년부터 다시 증가해 2000년에는 치요다區, 미나토區, 추오오우區의 도심 3개 區에서 과거의 번성기를 상회하는 수준인 198만 평방미터에 달했다(표 참조). 아울러, 도심의 오피스 임대료는 1992년에 평당 월(月) 임대료가 연간 평균 94,390엔으로 최고점에 달했다가, 1999년에는 40% 이하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하락 추세였던 임대료 수준은 2000년 이후 일부 지구에서 반전하고 있는데, 동(棟)당 연면적의 규모에 따라 오피스에 대한 수요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백서는 도심의 대표적인 오피스가(街)인 마루노우치, 오오테마치, 유우라쿠초 지구와 니혼바시, 야에스, 쿄우바시 지구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두 지역은 東京驛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지만, 평당 월(月) 임대료는 마루노우치 지구가 야에스 지구보다 2배 정도 높다. 공실률은 마루노우치 지구(0.9%)보다 야에스 지구(5.5%)가 약 6배나

높다.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로, 마루노우치 지구에는 연 면 적 9,900평 방 미 터 (3천 평) 이상의 오피스빌딩이 80% 가까이 를 차지 하고 있지만, 야에스 지구에는 1,650평방미터(5백평) 미만의



오피스빌딩이 약 60%를 점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현재 대규모 오피스빌딩에 대한 수요가 높은 데 반해, 야에스 지구 오피스는 소규모라서 시장의 필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都도시계획국은 오피스의 공급이 도심부에서 계속 증가함에 따라, 머지않아 오피스의 공급과잉 현상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7. 30)

② 주택수요조사 실시 및 투자대책 강구 (독일: 비스바덴市)

독일 헤센州 비스바덴市는 최근 주택수요실태 파악 및 이에 따른 대책 강구에 주력하고 있다. 市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올해 초 다름슈타트의 「주택과 환경연구소」에 주택수요조사 프로젝트를 의뢰하기도 했다.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주택시설이 약 53,000가구 부족하고, 14,000가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이 없이 친척집 또는 사회시설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州정부가 작년에 25,600가구를 수용하는 신규 주택을 건설했지만, 이 지역의 연구개발시설과 일자리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보고서는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州전역을 대상으로 2010년까지 매년 25,000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市당국은 앞으로 사회주택시설과 신규주택 건설에 매년 9,200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www.wiesbaden.de)

③ ‘차량에서의 쓰레기 투기’ 신고위해 「핫라인」 개설 (미국: 피닉스市)

미국 애리조나州 피닉스(Phoenix)市는 차량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누구든지 전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쓰레기 투기 핫라인(Litter Hotline)」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핫라인은 애리조나州 교통부와 비영리단체인 ‘Arizona Clean and Beautiful’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피닉스市뿐만 아니라 州전역에 개설된다. 신고자가 차량번호와 쓰레기 투기 내용을 알려주면, ‘Arizona Clean and Beautiful’은 차량 소유주에게 쓰레기 투기 사실을 통보, 주의를 줄 방침이다. 市는 「쓰레기 투기 핫라인」 운영으로 市도로청소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dot.state.az.us/NEWS/nrel1016.htm)

4] 청소차량을 ‘디젤차’ 에서 ‘LNG차’ 로 전환 (샌프란시스코)

미국 샌프란시스코市는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 및 수송에 이용하는 청소차량의 연료를 디젤에서 LNG로 바꾸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다. 市는 청소차량 2,200대 중 우선적으로 38대의 연료를 전환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市 최초로 LNG충전소를 금년 3월에 설치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이 지역이 대기오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선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市환경국이 청소차량의 연료 전환과 LNG충전소 설치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LNG 연료는 디젤 연료보다 NOx물질 배출량의 50%, 입자상물질 배출량의 80%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www.norcalwaste.com)

5] 민간기업과 연계해 승용차이용 억제 추진 (런던)

영국 정부는 오전 출근시간대의 승용차이용 억제를 위해서는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승용차이용 억제 프로그램을 현재 시범 운용중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런던 소재 기업을 포함, 약 2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 평균 약 18%의 승용차이용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킹엄셔주의회 직원들은 버스를 이용할 경우 50%의 요금 할인을 받는데, 그 결과 승용차 이용률이 71%에서 56%로 감소되었다. 한 IT업체는 사내에 비치된 대형 게시판에 카풀 희망자를 적는 방식으로 카풀을 운용하고 있다. 이동통신회사 ‘Orange’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승용차 이용률을 79%에서 27%로 대폭 줄였다. 영국 교통부는 시범 운용중인 약 20개 업체의 효과를 분석한 후, 2단계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www.guardian.co.uk/transport)

[6] 버스승객 유치 위해 버스이용정보 제공 강화 (버밍엄)

영국 버밍엄(Birmingham)의 대중교통운영기관 'Centro'는 버스승객 유치를 위해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버스이용정보 확충계획」을 최근 수립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에 걸쳐 시행될 '버스이용 증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버스승객은 전화, 인터넷 사이트, 실시간 전자교통정보 시스템, 버스운행시간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버스이용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승객의 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장뿐만 아니라 버스 내에도 버스노선 안내판이 설치될 예정이다. 市는 이를 통해 버스환승정보 등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버스승객 외에 잠재적인 버스승객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cbirmingham.icnetwork.co.uk/0100news/0100localnews/page.cfm?objectid=12072324&method=full)

[7] 원활한 교통흐름 위해 광역차원의 '교차로신호 연동화' 추진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 대도시권 내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간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교차로신호 연동화를 추진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이를 위해 2003~2005년까지 3백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워싱턴 D.C. 대도시권 지역의 4,500개 교차로 중 856개 교차로의 신호등 신호시간이 최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광역차원의 교통신호 연동화 프로그램은 통행시간의 단축 및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ww.washtimes.com/metro/20020801-3416267.htm)

8 '안전한 지하철' 위해 「첨단 범인추적시스템」 가동 (런던)

영국 런던 지하철이 오랜 '범죄와의 전쟁' 결과 런던의 일반 거리보다 안전한 것으로 최근 조사되었다. 영국 교통경찰국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런던 지하철과 역 주변의 범죄가 급격히 감소해, 성범죄는 일반 거리에 비해 약 15%, 소매치기, 차량 절도, 공공기물 파손 등 공중질서 파괴 범죄는 약 21%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CTV와 네트워크를 통한 「High-tech Policing」의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당국은 그동안 지하철역 일대의 상점들간에 네트워크를 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동경고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 놓았다. 특히, 범인을 CCTV로 포착해, 범인을 잡을 때까지 지상·지하로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사진 참조)을 통해 범죄를 크게 줄였다. 한편, 일부 대학에서는 「High-tech Policing」을 정식 교과과목으로 개설하기도 했다. 현재 영국 교통경찰국은 대학과 일반 기업을 포함하는 새로운 삼각 연계망을 계획하고 있다. (www.thetube.com)



9 유적지 보호 위해 진입차량에 통행료 부과 (영국: 더럼市)

영국 더럼(Durham)市는 유서 깊은 더럼대성당과 더럼성을 잇는 Saddler Street 사이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2파운드의 통행료를 징수기로 최근 결정했다. 市의 대표적인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 기금조성 등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차량진입 규제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市는 이번 조치로 이 일대 유적지를 찾는 보행자 수가 하루 약 13,000명에서 약 18,000명으로 증가하고, 차량은 약 3,000대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용 차량과 자전거 등은 이번 계획에서 제외되었다.

(www.guardian.co.uk/transport)

교통혼잡 완화 위해 카풀전용차선 확충 및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강화 (미국: 새크라멘토市)

미국 새크라멘토(Sacramento)市는 캘리포니아州 정부가 추진중인 「교통혼잡 완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장 25.6km의 카풀전용차선 확충 및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강화 등의 프로젝트에 착수할 예정이다. 市는 우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카풀전용차선 노선을 선정했다. 개인교통과 대중교통의 연계성 확보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방향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市는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콜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www.governor.ca.gov/state/govsite/gov_htmldisplay.jsp?BV_SessionID)

사후관리보다 예방 및 영구해결에 역점을 둔 ‘노숙자종합 대책’ 마련 (뉴욕)

약 1만 5천명의 어린이가 집이 없어 노숙자쉼터에서 숙식을 해결할 정도로 ‘홈리스(homeless)’ 문제가 당면 과제인 미국 뉴욕市는 ‘홈리스’에 대한 종합대책을 최근 마련했다. 市홈리스서비스국은 그동안 쉼터 제공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주력해왔으나, 앞으로는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와 영구적인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홈리스’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부서간의 협력 강화, 둘째, 쉼터에 머물고 있는 성인 및 가족 노숙자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주택지원대책 강구, 셋째, 홈리스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감을 높이는 방안 강구, 넷째, 홈리스서비스 수요 및 홈리스의 요구 조사 등이다.

市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용국, 재정국, 인력자원국 및 주택청을 포함하는 부서간 협력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홈리스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감 제고 및 성과 평가를 위해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www.nyc.gov/html/om/html/2002a/pr156-02.html)

도시정부의 성과평가보고서 일반시민에 공개 (미국: 잭슨빌市)

미국 플로리다州 잭슨빌(Jacksonville)市는 그동안 州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도시정부의 공공서비스를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한 후, 이 결과를 적극적으로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해왔다. 최근에는 그동안 공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일반에 공개되었다. 일부 관료들이 대부분의 성과 측정 및 평가 제도를 독점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지자체들이 많은 현실에서, 市의 이러한 시도는 관료조직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www.oppaga.state.fl.us)

「노상음주 금지법」 시행 (마드리드)

스페인 마드리드市는 노상에서 맥주나 포도주와 같은 알코올음료를 마실 수 없도록 규정한 「노상음주 금지법」을 올해 7월 말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와 기차역 등의 가판시설에서도 알코올음료 판매가 금지되었다. 그동안 대도시의 주거단지 주민들은 밤늦게까지 취객의 소음에 시달려왔다. 앞으로 마드리드에서 술을 마시려면 술집이나 레스토랑 아니면 집으로 가야 한다.

(Frankfurter Rundschau, 7. 30)